

# 성역할정체감이 겉옷·속옷에 대한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

윤은아·이선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n Clothing Behavior and Clothing Image of Out/Inner Wear According to Sex Role Stereotype

Eun-A Yoon · Sun-Jae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9. 2. 23 접수)

###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sex role stereotype that could be effective variable for conduction clothing behavior and clothing image preference,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stereotype and out/inner wear clothing behavior and clothing image preference of women, an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ies of out/inner wear market. A total of 628 samples were selected from adult female in Seoul. Questionnaire was used as major method of gathering data. They were analyzed by SAS package.

Main result of this study were follows:

1.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behavior and clothing image preference and demographic variables, four clothing-behaviors of out wear, and comfort and aesthetics of inner wea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ll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2.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stereotype and clothing behavior and clothing image preference, four types of sex role stereotype wer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fort, modesty, aesthetics and 'masculine-feminine' image of out wear, and 'masculine-feminine' image of inner wear.
3. In the consistency between out wear clothing behavior and clothing image preference, and inner wear clothing behavior and clothing image preference according to sex role stereotype, all cases except one showed no significant consistency.

**Key words:** clothing-behavior, sex role stereotype, androgyny; 의복행동, 성역할정체감, 양성성

### I. 서론

의복은 상호간의 역할을 확인하고 특정한 역할과

자기자신을 동일시하게 하는 수단으로 그 역할과의 관계에서 선택되며, 역할의 변화는 흔히 의복의 변화를 동반하고 의복의 변화는 착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의복은 성별을 구분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의복차이는 남녀의 신체 구조적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특정 사회나 문화권이 남녀 성원에게 각기 상이한 역할을 기대함으로써 형성된 성역할 고정관념(sex role stereotypes)에 의한 성차가 그대로 의복에 반영되기도 한다.

성역할과 의복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역할이 엄격히 구분되던 시대에는 남자다운 남자, 그리고 여자다운 여자에 수반되는 역할이나 성격, 태도, 가치, 의식을 가질 것을 요구해 의복도 성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두었다. 그러나 산업발달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가 여성 사회진출의 증가와 가사노동의 감소, 여성해방운동 및 남녀 평등사상 등으로 나타나 전통적으로 분리되어온 남녀간의 성역할 규범을 점차 약화시켰으며, 현재 이러한 변화는 남녀 의복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특징적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em(1974)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남자라서 남자 옷을 입어야 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옷을 입어야 하는 시대는 지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남성적인, 여성적인 또는 남성적-여성적인 요소가 복합된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개인에게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여성복의 기능화와 남성복의 다양화가 추구되었으며, 이러한 남성적-여성적인 특징을 모두 수반하는 대표적인 의복으로 유니섹스 스타일이 등장했다. 성역할 태도와 유니섹스 스타일 선호에 대해서 많은 연구(원미숙·강혜원, 1983; 이현미, 1987; 문군식, 1988; 최희순, 1988; 김정립, 1990; 이선재·장은영, 1990; 차진희, 1995)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현대사회의 이상적인 성역할 모델로써 양성의 개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성역할 개념은 미(美)에 대한 정의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이상적인 외모나 체형에 따라 신체나 외모에 대한 만족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며 성역할정체감이 반영되는 의복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개인의 남성적 혹은 여성적인 성향에 따라 의복인지도와 선호하는 의복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성역할 변화에 따른 의복행동 및 선호하는 의복이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정삼호·강혜원, 1977; 최경희, 1984; 이미정, 1990; 최윤경, 1990; 이명희, 1993; 김재희, 1994; 유경숙, 1996)가 시도되었는데, 이는 겉옷에만 국한된 것으로 90년대 이후 급격한 시장 성장을 보이고 있는 속옷과 성역할 변화를 관련지어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80년대 중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90년대의 호황기를 거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개성화, 차별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최근 속옷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으며 속옷도 점차 패션의 주요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감추어진' 개념의 속옷이 심리적 만족감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인해 차츰 '보여주는' 개념이 부각되어 새로운 섬유 소재의 개발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패션의 한 부분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겉옷에서만 언급되었던 성역할의 개념을 속옷에 도입하여 성인여성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의복행동과 의복이미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겉옷과 속옷별로 각각 분석하고, 이에 따라 성역할정체감이 겉옷에 대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정도와 속옷에 대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서로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I. 성역할 이론

한 어린이가 신체적으로 남자 또는 여자라는 것을 분별하는 순간부터 그 문화내에서 자신의 성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관을 습득해 가는 성정형화(sex-typing) 과정이 시작된다. 이에 대해 Block(1973)은 특정 문화가 남녀에게 기대하는 태도, 성격, 정서적 반응, 행동 등이 개인을 통해 발달되는 과정에서 정립되는 것이 성역할이며, 이는 각 문화마다 다르고 한 문화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천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성역할에 관한 초기 연구(Kaplan & Sedney, 1980)는 생물학적인 성차에 의해 심리적인 성차도

양분화 된다는 전제하에 개인의 행동, 능력, 성격은 생물학적인 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 구조로의 변화, 성의 해방, 전통적 결혼제도의 불안정성 등으로 성별에 대한 차별현상이 점차 와해되어감에 따라 현대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한 인간으로써 자신이 가진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급진적인 역할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그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로서 양성성(androgynty)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Bem(1977)에 의하면 심리적 양성성이란 행동에 융통성이 있고 남성적 과업이나 여성적 과업 모두에서 성취도가 높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소유함으로써 수단적이면서도 표현적일 수 있고 지배적이면서도 양보적일 수 있으며 경쟁적이면서도 지지적일 수 있는 인간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성역할 연구에서는 성정형화된 사람과 양성적인 사람의 행동과 심리적인 차이를 통해 사회의 유용성을 검증코자 시도되고 있으며, 성 자체를 사회적 영역으로 취급하여 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나 반응을 조사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2. 성역할과 의복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은 의복과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전달에 의해 강화되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의복을 형태상으로 확실하게 구별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Davis(1984)는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에 맞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적절한 성역할 행동의 표현이며, 각 개인들은 남성 또는 여성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차별을 고수하게 된다고 하였다.

직업여성을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와 직업인식, 의복태도와의 상관성을 조사한 Stemm(1980)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와 직업인식은 모든 의복태도와 의미있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Koch(1988)의 연구에서는 스스로를 여성해방론자라고 여기는 직업여성이 최신 스타일을 좋아하고 의복을 통해 인상적인 자기정의(self-definition)를 달성하

려 하며 인상형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 선택기준과의 관계를 조사한 Cassill과 Drake(1987)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이나 가사활동에 대하여 전통적인 견해를 가진 여성일수록 의복선택시 적절성보다는 경제적 기준을 보다 중요시하고, 전통적인 견해를 가진 여성 중 직업여성은 직장의복 선택시 적절성이나 잘맞음, 안락감 등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는 1971년 Kahng에 의해 처음으로 행해졌는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 전통적 태도를 지닌 학생들이 한복을 아름답고 정숙하며 활동에 적합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원(1979)의 연구에서도 이와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교육정도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이고 의복 정숙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니섹스 의복태도와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김재숙(1982), 원미숙(1983), 최경희(1983), 김재숙(1984), 김여숙(1985), 김정립(1990), 차진희(1994)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니섹스 의복에 보다 높은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성에 비해 양성성과 남성성 유형의 여성이, 그리고 성역할에 대해 개방적인 여성일수록 유니섹스 의복 수용도와 편이성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딸의 성역할정체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이현미(198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 차이는 없으나 자녀의 경우 남성성 유형의 자녀는 남성적인 의복특성이 높고 여성성 유형의 자녀는 여성적인 의복특성이 높으며, 양성성 유형과 미분화 유형의 자녀는 그 중간의 의복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최희순(1988)의 연구에서는 전통적 태도를 지닌 여성이 개방적 태도를 지닌 여성에 비해 의복착용 등의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윤경(1990)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가 현대적인 여성이 전통적인 여성에 비해 유행에 관심이 많고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큰데 비해,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인 여성은 의복 안락감을 중요시하고 매력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의해 성역할 태도 및 정체감은 유니섹스 의복에 대한 태도, 음양의복유형, 그 외 정숙성, 심미성, 편이성, 중요성, 매력성, 유행성, 개성, 안락감, 이미지 선호 등의 여러 측면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속변인을 의복행동과 의복이미지로 한정하여 현대사회의 다양한 성역할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의복행동의 특징적 성향을 밝히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간접조사 연구방법인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성역할정체감, 겉옷과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 및 이미지 선호 평가요소 및 인구통계적 특성을 포함한다.

##### 1) 성역할정체감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의 성역할정체감 검사를 위해 한국 성역할 검사(KSRI: Korean Sex Rol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KSRI는 한국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기초로 정진경(1990)이 개발한 검사도구로서 남성성 척도 20문항, 여성성 척도 20문항, 긍정성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SRI 검사에 대한 표준화를 위하여 전체 60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긍정성 문항의 애매성으로 인해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남성성과 여성성 문항만을 통계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Spence, Helmreich와 Stapp(1975)이 개발한 중앙치분리법(median-split method)을 이용하여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구분하였다. 즉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상이면 양성성,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이면서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 미만이면 남성성, 여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이면서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 미만이면 여성성, 두 점수가 모두 중앙치 미만이면 미분화라 칭한다.

##### 2)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 검사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의복행동은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으로 세분하였으며 이 중에서 겉옷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 세 변인은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속옷에 관해서는 편이성 11문항, 정숙성 9문항, 심미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겉옷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 측정을 위한 30개의 문항은 Creekmore(1966), 김광경(1973), 최혜선(1981)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속옷의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 측정을 위한 30개의 문항은 본 연구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대학원생 1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한 후, 문항과 변인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극단적으로 편중된 경향을 띠는 문항은 제외시키거나 수정 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의복이미지 선호도 검사는 Gibbins & Schneider(1980), Sweat & Zentner(1985)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형용사 중 속옷이미지에 부적합한 문항을 제외한 19개의 형용사를 겉옷과 속옷이미지 선호도 측정도구로 사용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겉옷이미지와 속옷이미지의 요인수는 각각 3개로 결정되었으며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을 추출한 후 겉옷·속옷이미지내의 같은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5개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문항을 재 요인분석하여 겉옷이미지의 세 요인에 속하는 문항과 속옷이미지의 세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 일치함에 따라 이를 통계처리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피험자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9세에서 49세까지의 성인여성으로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1997년 9월 1일에서 9월 20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8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것 중에서 불완전한 자료나 비조사 대상자의 자료를 제외한 총 628부의 설문지를 통계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겉옷이미지와 속옷이미지 선호를 각 요인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방법 중 주축인자분석을 시행하였고 각 변인의 분포사항을 알기 위하여 빈도분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하여 적률상관

〈표 1〉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인구통계적 변인별 빈도분포

성 향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계
		빈도	상대빈도	빈도	상대빈도	빈도	상대빈도	빈도	상대빈도	
연 령	20대	50	25.51	55	45.83	43	34.40	78	41.71	226
	30대	62	31.63	45	37.50	48	38.40	74	39.57	229
	40대	84	42.86	20	16.67	34	27.20	35	18.72	173
	계	196	100.00	120	100.00	125	100.00	187	100.00	628
교육 수준	고졸이하	87	44.62	30	25.00	51	41.13	59	31.72	227
	대재·대졸	99	50.77	88	73.33	71	57.26	123	66.13	381
	대학원 이상	10	4.62	2	1.67	3	1.61	5	2.15	20
	계	196	100.00	120	100.00	125	100.00	187	100.00	628
결혼 여부	미 혼	61	31.28	64	53.33	50	40.32	99	53.23	274
	기 혼	135	68.72	56	46.67	75	59.68	88	46.77	354
	계	196	100.00	120	100.00	125	100.00	187	100.00	628
직 업	학생	38	19.39	40	33.33	29	23.20	61	32.62	168
	가정주부	71	36.22	26	21.67	55	44.00	37	19.79	189
	전문직	7	3.57	7	5.83	2	1.60	3	1.60	19
	경영·관리직	3	1.53	3	2.50	1	0.80	5	2.67	12
	전문기술직	39	19.90	30	25.00	20	16.00	44	23.53	133
	사무직	11	5.61	11	9.17	9	7.20	21	11.23	52
	판매·서비스직	27	13.78	3	2.50	9	7.20	16	8.56	55
	계	196	100.00	120	100.00	125	100.00	187	100.00	628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에 대한 타 변인의 영향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성역할정체감 분석

성인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역할정체감과 연령과의 관계에서는 20대와 30대의 경우 미분화 유형이, 40대의 경우 양성성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면 고졸이하 집단에서는 양성성 유형의 여성이 가장 많고 대재 및 대졸 집단에서는 미분화 유형의 여성이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수준을 지닌 집단에서는 양성성 유형의 여성이 많았다. 결혼여부별로는 미혼의 경우 미분화 유형의 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기혼의 경우에는 양성성 유형의 여성이 많았다. 직업변인별로는 학생의 경우 미분화 유형의 여성이

많았으며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양성성 유형의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성이나 여성성 유형보다는 양성성이나 미분화 유형의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대, 사회, 교육적인 영향으로 인해 차츰 생물학적 성에 의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 분석

성인여성의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 각 변인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는 각 변인별 평균점수는 <표 2>와 같으며, 이때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그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며 의복이미지는 7점 척도의 중간 점수를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진보적', '남성적', '감성적' 이미지를, 그 이상이면 '보수적', '여성적', '이지적'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표 2>에 의하면 겉옷에 대해서는 편이성, 심미성, 정숙성의 순으로, 속옷에 대해서는 정숙성, 편이

〈표 2〉 의복행동 · 의복이미지 각 변인별 점수

의복행동 · 의복이미지		평균 (M)	표준편차 (S.D)
겉	편이성	3.47	0.65
	정숙성	3.03	0.67
	심미성	3.16	0.63
옷 이미지	진보적-보수적	4.11	1.05
	남성적-여성적	4.19	0.76
	감성적-이지적	3.57	0.87
속	편이성	3.11	0.49
	정숙성	3.31	0.51
	심미성	2.83	0.63
옷 이미지	진보적-보수적	4.15	1.17
	남성적-여성적	4.53	0.74
	감성적-이지적	3.38	0.89

N=628

성, 심미성의 순으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복이미지 세 요인에 대해서는 겉옷의 경우 '보수적', '여성적', '이지적' 이미지의 선호가 높았으며 속옷에 대해서는 '보수적', '여성적', '감성적' 이미지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 각 하위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겉옷과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 중 같은 변인들 사이에는 항상 정적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겉옷과 속옷 모두 편이성을 추구할수록 정숙성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심미성에 대한 관심은 낮으며, 정숙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심미성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복이미지 선호에서도 겉옷과 속옷 모두 '보수적'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남성적', '이지적'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진보적'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여성적', '감성적'인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와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겉옷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또한 고졸이하와 대학원이상의 학력 소지자, 기혼 가정주부 집단이 편이성과 정숙성에 대한 태도가 높으며,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심미성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겉옷이미지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또한 기혼 가정주부와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보수적'이며 '여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반면에, 미혼의 경영 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보다 '진보적'이며 '남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선재(1983)의 연구와

〈표 3〉 의복행동 · 의복이미지 각 하위변인간의 상관관계

의복행동 · 의복이미지	겉 옷						속 옷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	이미지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	이미지			
				보수적 진보적	여성적 남성적	이지적 감성적				보수적 진보적	여성적 남성적	이지적 감성적	
겉	편이성	1.000											
	정숙성	0.346***	1.000										
	심미성	-0.183***	-0.109***	1.000									
옷	이 보수적 · 진보적	-0.265***	-0.395***	0.297***	1.000								
	미 여성적 · 남성적	-0.036	-0.049	-0.095**	-0.062	1.000							
	지 이지적 · 감성적	-0.037	-0.224***	0.034	0.272***	-0.068*	1.000						
속	편이성	0.445***	0.346***	-0.169***	-0.276***	0.079**	-0.100**	1.000					
	정숙성	0.217***	0.419***	-0.194***	-0.349***	0.126***	-0.106***	0.445***	1.000				
	심미성	-0.006	-0.168***	0.465***	0.276***	-0.070*	0.064	-0.209***	-0.469***	1.000			
옷	이 보수적 · 진보적	-0.174***	-0.371***	0.135**	*0.527***	-0.067*	0.202**	-0.369***	-0.547***	0.406***	1.000		
	미 여성적 · 남성적	0.045	0.067*	-0.103**	-0.073*	0.408***	-0.109**	-0.139***	0.228***	-0.110**	-0.206***	1.000	
	지 이지적 · 감성적	-0.050	-0.126***	0.021	0.200**	-0.084**	0.429***	-0.129**	-0.174***	0.139**	0.262***	-0.166***	1.000

\*p<.05 \*\*p<.01 \*\*\*p<.001

N=628

〈표 4〉 겉옷에 대한 의복행동·의복이미지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인구 통계적 변인	의복행동· 이미지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	이 미 지		
					진보적·보수적	남성적·여성적	감성적·이지적
		평균(M)	평균(M)	평균(M)	평균(M)	평균(M)	
연 령	20대	3.24 <sup>a</sup>	2.76 <sup>a</sup>	3.23 <sup>b</sup>	3.82 <sup>c</sup>	4.06 <sup>b</sup>	3.46 <sup>b</sup>
	30대	3.56 <sup>b</sup>	3.10 <sup>b</sup>	3.19 <sup>b</sup>	4.13 <sup>b</sup>	4.29 <sup>a</sup>	3.50 <sup>b</sup>
	40대	3.64 <sup>b</sup>	3.30 <sup>c</sup>	3.03 <sup>a</sup>	4.48 <sup>a</sup>	4.22 <sup>a</sup>	3.79 <sup>a</sup>
	F-Value	23.81 <sup>***</sup>	36.28 <sup>***</sup>	5.11 <sup>**</sup>	20.19 <sup>***</sup>	5.36 <sup>**</sup>	8.48 <sup>***</sup>
교 육 수 준	고졸이하	3.64 <sup>b</sup>	3.20 <sup>b</sup>	3.07 <sup>a</sup>	4.39 <sup>a</sup>	4.32 <sup>a</sup>	3.63
	대재·대졸	3.36 <sup>a</sup>	2.92 <sup>a</sup>	3.20 <sup>ab</sup>	3.95 <sup>a</sup>	4.12 <sup>ab</sup>	3.53
	대학원이상	3.59 <sup>ab</sup>	3.27 <sup>b</sup>	3.45 <sup>b</sup>	4.14 <sup>a</sup>	3.83 <sup>b</sup>	3.58
	F-Value	13.79 <sup>***</sup>	14.35 <sup>***</sup>	4.79 <sup>**</sup>	12.92 <sup>***</sup>	6.84 <sup>**</sup>	0.87
결 혼 여 부	미 혼	3.28 <sup>a</sup>	2.84 <sup>a</sup>	3.21	3.87 <sup>b</sup>	4.06 <sup>b</sup>	3.48 <sup>b</sup>
	기 혼	3.61 <sup>b</sup>	3.18 <sup>b</sup>	3.12	4.30 <sup>a</sup>	4.29 <sup>a</sup>	3.64 <sup>a</sup>
	F-Value	43.83 <sup>***</sup>	42.55 <sup>***</sup>	3.44	27.04 <sup>***</sup>	14.02 <sup>***</sup>	5.47 <sup>*</sup>
직 업	학생	3.24 <sup>a</sup>	2.73 <sup>a</sup>	3.15 <sup>a</sup>	3.81 <sup>bc</sup>	4.02 <sup>ab</sup>	3.48 <sup>a</sup>
	가정주부	3.66 <sup>b</sup>	3.23 <sup>c</sup>	3.05 <sup>a</sup>	4.33 <sup>ab</sup>	4.35 <sup>a</sup>	3.54 <sup>a</sup>
	전문직	3.27 <sup>a</sup>	3.17 <sup>bc</sup>	3.36 <sup>a</sup>	3.94 <sup>bc</sup>	4.22 <sup>ab</sup>	3.73 <sup>a</sup>
	경영·관리직	3.45 <sup>ab</sup>	2.84 <sup>ab</sup>	3.16 <sup>a</sup>	3.68 <sup>c</sup>	3.95 <sup>b</sup>	3.00 <sup>b</sup>
	전문기술직	3.38 <sup>ab</sup>	3.02 <sup>abc</sup>	3.31 <sup>a</sup>	4.06 <sup>bc</sup>	4.16 <sup>ab</sup>	3.67 <sup>a</sup>
	사무직	3.54 <sup>ab</sup>	3.15 <sup>bc</sup>	3.21 <sup>a</sup>	4.11 <sup>abc</sup>	4.20 <sup>ab</sup>	3.50 <sup>a</sup>
	판매·서비스직	3.70 <sup>b</sup>	3.16 <sup>bc</sup>	3.11 <sup>a</sup>	4.60 <sup>a</sup>	4.25 <sup>ab</sup>	3.81 <sup>a</sup>
	F-Value	8.55 <sup>***</sup>	9.99 <sup>***</sup>	2.62 <sup>*</sup>	6.30 <sup>***</sup>	3.18 <sup>**</sup>	2.34 <sup>*</sup>

abc=Duncan다중범위검증 \*p<.05 \*\*p<.01 \*\*\*p<.001

N=628

는 상반되며 이인자(1978), 김정호(1978), 강혜원(1979)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속옷에 대해서는 높은 연령의 기혼 가정주부와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편이성에 대한 태도가 높고, 심미성에 대해서는 30대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속옷이미지 선호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이면서 '이지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속옷 정숙성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 없이 편이성, 심미성에 비해 높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부끄럽고 감추는' 부분이라는 고정관념적인 속옷개념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며, 속옷이미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집단이 '보수적', '여성적', '감성적'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통계적인 여러 변수들이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3. 성역할정체감과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와의 관계분석

성역할정체감과 겉옷에 대한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겉옷 편이성에 대해서는 양성성 집단이, 겉옷 정숙성에 대해서는 양성성 집단과 여성성 집단이, 겉옷 심미성에 대해서는 여성성 집단의 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겉옷이미지에 있어서는 네 집단 모두 '보수적'이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하였으며, 특히 '여성성-남성성' 이미지에 있어서는 양성성과 남성성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여성적' 이미지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선재(1990), 최윤경(1990)의 연구와는 일치하나 유경숙(1996)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표 7>은 성역할정체감과 속옷에 대한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로써 유일하게 속옷의 '남성

〈표 5〉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의복이미지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의복행동· 이미지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	이 미 지		
					진보적·보수적	남성적·여성적	감성적·이지적
인구 통계적 변인		평균(M)	평균(M)	평균(M)	평균(M)	평균(M)	평균(M)
연령	20대	2.95 <sup>a</sup>	3.31	2.64 <sup>a</sup>	4.08 <sup>b</sup>	4.50	3.25 <sup>b</sup>
	30대	3.10 <sup>b</sup>	3.27	2.80 <sup>b</sup>	4.04 <sup>b</sup>	4.56	3.36 <sup>b</sup>
	40대	2.68 <sup>c</sup>	3.35	2.61 <sup>a</sup>	4.39 <sup>a</sup>	4.54	3.56 <sup>a</sup>
	F-Value	30.08 <sup>***</sup>	1.20	5.51 <sup>**</sup>	5.04 <sup>**</sup>	0.40	6.04 <sup>**</sup>
교육수준	고졸이하	3.20 <sup>a</sup>	3.28	2.69	4.23	4.53	3.47
	대재·대졸	3.06 <sup>a</sup>	3.32	2.68	4.08	4.54	3.32
	대학원이상	3.07 <sup>a</sup>	3.51	2.82	4.57	4.29	3.45
	F-Value	5.43 <sup>**</sup>	1.65	0.39	2.30	0.94	1.97
결혼여부	미혼	2.98 <sup>a</sup>	3.33	2.66	4.09	4.51	3.31
	기혼	3.21 <sup>b</sup>	3.29	2.71	4.19	4.55	3.43
	F-Value	34.03 <sup>***</sup>	0.98	1.10	1.14	0.57	2.73
직업	학생	2.96 <sup>a</sup>	3.34	2.55 <sup>a</sup>	4.12	4.48 <sup>a</sup>	3.25
	가정주부	3.24 <sup>b</sup>	3.27	2.65 <sup>a</sup>	4.24	4.70 <sup>a</sup>	3.38
	전문직	3.02 <sup>ab</sup>	3.26	3.00 <sup>b</sup>	4.50	4.35 <sup>a</sup>	3.52
	경영·관리직	3.07 <sup>ab</sup>	3.12	2.84 <sup>ab</sup>	4.44	4.48 <sup>a</sup>	3.75
	전문기술직	3.12 <sup>ab</sup>	3.35	2.78 <sup>ab</sup>	4.09	4.55 <sup>a</sup>	3.52
	사무직	2.96 <sup>a</sup>	3.20	2.77 <sup>ab</sup>	3.92	4.31 <sup>a</sup>	3.35
	판매·서비스직	3.24 <sup>b</sup>	3.41	2.79 <sup>ab</sup>	4.07	4.39 <sup>a</sup>	3.30
	F-Value	6.84 <sup>***</sup>	1.46	3.21 <sup>**</sup>	1.03	3.01 <sup>**</sup>	1.66

abc=Duncan다중범위검증 \*p<.05 \*\*p<.01 \*\*\*p<.001

N=628

〈표 6〉 겉옷에 대한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차이 검증

의복행동·이미지	집 단				F-Value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편이성	3.59 <sup>c</sup>	3.31 <sup>a</sup>	3.51 <sup>bc</sup>	3.41 <sup>ab</sup>	5.30 <sup>**</sup>	
정숙성	3.17 <sup>b</sup>	2.83 <sup>a</sup>	3.12 <sup>b</sup>	2.96 <sup>a</sup>	7.60 <sup>***</sup>	
심미성	3.21 <sup>ab</sup>	3.08 <sup>a</sup>	3.28 <sup>b</sup>	3.08 <sup>a</sup>	3.80 <sup>*</sup>	
이미지	진보적·보수적	4.08	3.91	4.25	4.19	2.54
	남성적·여성적	4.43 <sup>a</sup>	4.28 <sup>a</sup>	4.11 <sup>b</sup>	3.91 <sup>c</sup>	11.57 <sup>*</sup>
	감성적·이지적	3.63	3.49	3.49	3.60	1.01

abc=Duncan다중범위검증

\*p<.05 \*\*p<.01 \*\*\*p<.001

N=628

적-여성적' 이미지에서만 네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성 집단이 속옷의 '여성적'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은 남성성, 양성성, 미분화 순으로 '여성적'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속옷 편이성, 정숙성에 있어서는 네 집단의

〈표 7〉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차이 검증

의복행동·이미지	집 단				F-Value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편이성	3.17	3.02	3.13	3.09	2.56	
정숙성	3.28	3.30	3.33	3.32	0.27	
심미성	2.75	2.64	2.67	2.66	0.94	
이미지	진보적·보수적	4.14	4.15	4.20	4.12	0.11
	남성적·여성적	4.46 <sup>bc</sup>	4.59 <sup>ab</sup>	4.75 <sup>a</sup>	4.38 <sup>c</sup>	6.89 <sup>***</sup>
	감성적·이지적	3.33	3.40	3.33	3.44	0.67

abc=Duncan다중범위검증

\*p<.05 \*\*p<.01 \*\*\*p<.001

N=628

태도가 다소 높았으며 심미성에 대한 태도는 낮았다. 속옷이미지에 있어서는 네 집단 모두 '보수적', '여성적', '감성적' 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성역할정체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



향 정도를 보면 겉옷에 대한 의복행동 6개 변인 중에서는 4개 변인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속옷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변인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성인여성이 겉옷에 대해서는 성역할정체감에 의한 뚜렷한 성향을 가지는 반면에 속옷에 대해서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관계없이 매우 흡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은 겉옷과 속옷의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 6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인데, 집단별 유의수준내에 있는 최대 8개의 변인간 관계에서 5개 경우의 의복행동이 네 집단 모두 일치하였으며, 특히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집단은 7개 부분이 일치하였고 양성성과 여성성 집단의 의복행동 결과는 모든 변인간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옷과 속옷이미지 6개 변인간의 관계를 나타낸 <표 9>에서도 집단별 유의수준내에 있는 최대 7개의 변인간 관계에서 5개 경우가 네 집단 모두 일치된 결과를 보였으며 남성성과 미분화 집단, 여성성과 미분화 집단은 6개 경우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역할정체감 유형별로 분류된 네 집단의 겉옷과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 변인간의 상관성이 대부분 일치하였다는 점은, 성인여성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차이가 매우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4. 성역할정체감 및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 선호도 분석**

성역할정체감이 의복행동과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보다 세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통계적 변인 중 성인여성의 의복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측되는 연령과 성역할정체감별로 세분한 총 12개 집단의 의복행동을 비교한 결과는 <표 10>, <표 11>, <표 12>, <표 13>과 같다.

겉옷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성역할정체감 집단간의 공통성보다는 동일한 연령 집단간의 공통성이 많았으며, 겉옷이미지와 속옷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 이미지 변인에 대해서는 각

**<표 8> 성역할정체감별 겉옷·속옷에 대한 의복행동 변인간의 상관관계**

겉옷	집단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
	속옷				
양성성	편이성		0.466***	0.273***	-0.219**
	정숙성		0.272***	0.420***	-0.142*
	심미성		-0.017	-0.169*	0.445***
남성성	편이성		0.478***	0.372***	-0.234*
	정숙성		0.313***	0.452***	-0.178
	심미성		-0.091	-0.205*	0.402***
여성성	편이성		0.433***	0.328***	-0.228*
	정숙성		0.219*	0.443***	-0.452***
	심미성		0.032	-0.209*	0.634***
미분화	편이성		0.375***	0.385***	-0.065
	정숙성		0.104	0.413***	-0.070
	심미성		0.003	-0.162*	0.404***

\*p<.05 \*\*p<.01 \*\*\*p<.001 N=628

**<표 9> 성역할정체감별 겉옷·속옷이미지 변인간의 상관관계**

겉옷	집단		진보적 보수적	남성적 여성적	감성적 이지적
	속옷				
양성성	진보적 보수적		0.573***	0.019	0.184***
	남성적 여성적		0.087*	0.314***	-0.041
	감성적 이지적		0.186***	-0.071	0.405***
남성성	진보적 보수적		0.450***	0.080	0.148**
	남성적 여성적		0.016	0.298***	-0.208***
	감성적 이지적		0.172**	0.034	0.461***
여성성	진보적 보수적		0.590***	0.004	0.251***
	남성적 여성적		0.025	0.464***	-0.075
	감성적 이지적		0.230***	-0.167**	0.606***
미분화	진보적 보수적		0.483***	0.075	0.096*
	남성적 여성적		0.022	0.483***	-0.140***
	감성적 이지적		0.161***	-0.090*	0.299***

\*p<.05 \*\*p<.01 \*\*\*p<.001 N=628

〈표 10〉 겉옷에 대한 의복행동의 연령과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차이 검증

집단	의복행동	의복행동			F-Value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	
20대	양성성	3.29 <sup>b</sup>	2.90 <sup>a</sup>	3.27 <sup>b</sup>	5.76 <sup>***</sup>
	남성성	3.05 <sup>b</sup>	2.48 <sup>a</sup>	3.22 <sup>b</sup>	19.29 <sup>****</sup>
	여성성	3.28	3.01	3.34	2.90
	미분화	3.31 <sup>b</sup>	2.73 <sup>a</sup>	3.13 <sup>b</sup>	17.66 <sup>***</sup>
30대	양성성	3.73 <sup>c</sup>	3.03 <sup>a</sup>	3.29 <sup>b</sup>	18.87 <sup>***</sup>
	남성성	3.51 <sup>b</sup>	3.22 <sup>a</sup>	3.12 <sup>a</sup>	5.23 <sup>**</sup>
	여성성	3.68 <sup>b</sup>	3.14 <sup>a</sup>	3.28 <sup>a</sup>	7.88 <sup>***</sup>
	미분화	3.36 <sup>b</sup>	3.06 <sup>a</sup>	3.10 <sup>a</sup>	6.00 <sup>**</sup>
40대	양성성	3.66 <sup>c</sup>	3.42 <sup>b</sup>	3.12 <sup>a</sup>	16.91 <sup>***</sup>
	남성성	3.57 <sup>b</sup>	2.94 <sup>a</sup>	2.56 <sup>a</sup>	13.48 <sup>***</sup>
	여성성	3.55 <sup>b</sup>	3.22 <sup>a</sup>	3.21 <sup>a</sup>	3.11 <sup>*</sup>
	미분화	3.73 <sup>c</sup>	3.27 <sup>b</sup>	2.90 <sup>a</sup>	19.62 <sup>***</sup>

abc=Duncan다중범위검증\*

\*p<.05 \*\*p<.01 \*\*\*p<.001

N=628

〈표 12〉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의 연령과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차이 검증

집단	의복행동	의복행동			F-Value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	
20대	양성성	3.00 <sup>b</sup>	3.28 <sup>c</sup>	2.64 <sup>a</sup>	14.10 <sup>***</sup>
	남성성	2.82 <sup>a</sup>	3.24 <sup>b</sup>	2.67 <sup>a</sup>	13.85 <sup>***</sup>
	여성성	2.96 <sup>a</sup>	3.38 <sup>b</sup>	2.74 <sup>a</sup>	17.16 <sup>***</sup>
	미분화	3.00 <sup>b</sup>	3.33 <sup>c</sup>	2.55 <sup>a</sup>	44.26 <sup>***</sup>
30대	양성성	3.12 <sup>b</sup>	3.23 <sup>b</sup>	2.91 <sup>a</sup>	6.35 <sup>**</sup>
	남성성	3.10 <sup>b</sup>	3.37 <sup>c</sup>	2.72 <sup>a</sup>	15.13 <sup>***</sup>
	여성성	3.06 <sup>b</sup>	3.19 <sup>b</sup>	2.72 <sup>a</sup>	9.41 <sup>***</sup>
	미분화	3.12 <sup>b</sup>	3.30 <sup>c</sup>	2.79 <sup>a</sup>	20.10 <sup>***</sup>
40대	양성성	3.30 <sup>b</sup>	3.32 <sup>b</sup>	2.69 <sup>a</sup>	31.50 <sup>***</sup>
	남성성	3.35 <sup>b</sup>	3.29 <sup>b</sup>	2.40 <sup>a</sup>	24.33 <sup>***</sup>
	여성성	3.45 <sup>b</sup>	3.46 <sup>b</sup>	2.50 <sup>a</sup>	29.40 <sup>***</sup>
	미분화	3.23 <sup>b</sup>	3.36 <sup>b</sup>	2.62 <sup>a</sup>	17.89 <sup>***</sup>

abc=Duncan다중범위검증\*

\*p<.05 \*\*p<.01 \*\*\*p<.001

N=628

〈표 11〉 겉옷에 대한 의복이미지의 연령과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차이 검증

집단	의복행동	겉옷 이미지		
		진보적 보수적	남성적 여성적	감성적 이지적
20대	양성성	3.79 <sup>b</sup>	4.51 <sup>a</sup>	3.48
	남성성	3.56 <sup>c</sup>	4.17 <sup>b</sup>	3.38
	여성성	4.05 <sup>a</sup>	3.98 <sup>c</sup>	3.54
	미분화	3.79 <sup>b</sup>	3.95 <sup>c</sup>	3.47
	F-Value	6.72 <sup>***</sup>	23.09 <sup>***</sup>	0.81
30대	양성성	3.93	4.55 <sup>a</sup>	3.45 <sup>ab</sup>
	남성성	3.94	4.36 <sup>b</sup>	3.59 <sup>a</sup>
	여성성	3.98	4.21 <sup>b</sup>	3.34 <sup>b</sup>
	미분화	4.02	4.06 <sup>c</sup>	3.58 <sup>a</sup>
	F-Value	0.301	3.15 <sup>***</sup>	3.15 <sup>*</sup>
40대	양성성	4.17	4.30 <sup>a</sup>	3.85 <sup>ab</sup>
	남성성	3.98	3.95 <sup>b</sup>	3.56 <sup>c</sup>
	여성성	4.18	4.16 <sup>a</sup>	3.66 <sup>bc</sup>
	미분화	4.25	4.23 <sup>a</sup>	3.93 <sup>a</sup>
	F-Value	1.09	4.18 <sup>**</sup>	3.45 <sup>*</sup>

abc=Duncan다중범위검증

\*p<.05 \*\*p<.01 \*\*\*p<.001

N=628

〈표 13〉 속옷에 대한 의복이미지의 연령과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차이 검증

집단	의복행동	속옷 이미지		
		진보적 보수적	남성적 여성적	감성적 이지적
20대	양성성	3.93	4.51 <sup>b</sup>	3.20 <sup>b</sup>
	남성성	3.86	4.54 <sup>b</sup>	3.18 <sup>b</sup>
	여성성	3.97	4.75 <sup>a</sup>	3.09 <sup>b</sup>
	미분화	3.99	4.32 <sup>c</sup>	3.41 <sup>a</sup>
	F-Value	0.52	9.64 <sup>***</sup>	5.55 <sup>***</sup>
30대	양성성	3.92	4.62 <sup>b</sup>	3.24 <sup>b</sup>
	남성성	4.16	4.34 <sup>c</sup>	3.70 <sup>a</sup>
	여성성	4.05	4.83 <sup>a</sup>	3.31 <sup>b</sup>
	미분화	3.90	4.47 <sup>bc</sup>	3.30 <sup>b</sup>
	F-Value	1.99	13.77 <sup>***</sup>	7.92 <sup>***</sup>
40대	양성성	4.14	4.62 <sup>a</sup>	3.47 <sup>bc</sup>
	남성성	4.06	4.48 <sup>ab</sup>	3.33 <sup>c</sup>
	여성성	4.29	4.61 <sup>a</sup>	3.66 <sup>ab</sup>
	미분화	4.14	4.32 <sup>b</sup>	3.80 <sup>a</sup>
	F-Value	0.72	4.02 <sup>**</sup>	4.69 <sup>**</sup>

abc=Duncan다중범위검증

\*p<.05 \*\*p<.01 \*\*\*p<.001

N=628

연령별 성역할정체감 유형으로 분류된 12개 집단간의 차이가 없어 모든 집단의 태도가 매우 흡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여성의 겉옷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에 대한 태도는 성역할정체감보다는 연령에

의해 보다 큰 영향을 받으며 속옷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과 겉옷·속옷의 이미지 선호에 있어서는 연령과 성역할정체감이 모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여성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겉옷·속옷에 대한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 선호와의 관련성을 규명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40대의 고졸이하와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지닌 가정주부와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이 양성성 성향을 가장 높게 나타냈으며, 20대~30대의 대학생과 대졸 학력을 지닌 전문기술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미혼여성이 미분화 성향을 가장 높게 나타냈다.

둘째, 성인여성의 의복행동을 분석한 결과 겉옷인 경우에는 편이성, 심미성, 정숙성, 속옷인 경우에는 정숙성, 편이성, 심미성의 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셋째,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 하위변인간의 관계에서 겉옷과 속옷에 대한 행동 중 같은 변인들 사이에는 항상 정적상관관계가 성립하였고, 겉옷과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 하위변인간의 관계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와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겉옷에 대해서는 40대의 고졸이하와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지닌 기혼 가정주부가 편이성과 정숙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심미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겉옷이미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40대의 기혼 가정주부와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보수적이며 여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반면에, 미혼의 경영 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진보적이며 남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은 40대의 기혼 가정주부와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편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심미성에 대해서는 30대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옷 이미지 선호에 있어서는 40대 여성이 보수적이면서도 이지적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역할정체감과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의 관계에서 겉옷의 편이성에 대해서는 양성성 집단이, 겉옷의 정숙성에 대해서는 양성성과 여성성 집단이, 겉옷의 심미성에 대해서는 여성성 집단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미지 선호 조사 결과 양성성과 남성성 집단이 겉옷에서 여성적 이미지를, 여성성 집단은 속옷에서 여성적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 및 의복이미지 변인간의 관계에서 겉옷인 경우에는 양성성 집단이 심미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여성적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미분화 집단이 심미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감성적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속옷인 경우에는 양성성과 여성성 집단이 편이성과 정숙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여성적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남성성 집단이 정숙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남성적 이미지를 선호하였으며, 미분화 집단이 편이성과 정숙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여성적이고 감성적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겉옷 속옷의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과 겉옷 '보수적-진보적' 이미지의 관계가, 겉옷 정숙성과 겉옷 '이지적-감성적' 이미지의 관계가, 속옷 정숙성과 '여성적-남성적' 이미지의 관계가 네 집단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성역할정체감별 겉옷과 속옷에 대한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 이미지 8개 하위변인간의 상관성에서는 네 집단 모두 같은 변인간에는 항상 정적상관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서로 다른 변인간에도 편이성과 정숙성은 항상 정적상관관계가, 편이성과 심미성의 관계와 정숙성과 심미성의 관계에는 항상 부적상관관계가 성립하였다. 의복이미지 변인간에도 '진보적-보수적' 이미지와 '감성적-이지적' 이미지의 관계에는 항상 정적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인구통계적 변인 중 연령과 성역할정체감 별로 세분한 총 12개 집단의 의복행동과 이미지 선호를 분석한 결과 겉옷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에 대

해서는 20대, 30대, 40대의 같은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지닌 집단간 공통성보다는 같은 연령대 내에서의 내 집단간 공통성이 많았으며, 겉옷이미지와 속옷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 이미지 모든 변인에 대해서는 연령과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집단간 차이가 거의 없어 12개 집단의 태도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기초하여 다음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식의 변화와 함께 소비패턴의 다양화 개성화로 인하여 차츰 패션의 주요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 문항만을 이용하여 의복이미지 선호를 조사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정확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보다 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과 의복 스타일을 이용한 사진 제시물이나 실제 착의 실험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겉옷과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 차이를 성역할정체감과 연령별로 비교하여 그 차이가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겉옷과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 차이에 보다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시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성인여성의 겉옷 속옷 편이성, 정숙성, 심미성, 이미지 선호에 대한 전반적인 의복행동을 파악한다면 기업의 의류상품 생산, 기획에 보다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겉옷과는 달리 속옷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인여성이 확일적으로 보수적이면서도 여성스럽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한다는 본 연구결과를 이용한다면 속옷관련업체들의 보다 정확한 마케팅 효과를 얻는데 유용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여숙(1985), "대학생의 유니섹스 의복에 대한 태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연구", 공주사범대학 석사학위논문.

김정립(1990), "성정체감에 따른 여자대학생의 의복행동 차이",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강(1980), "새로운 성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경숙(1996), "성역할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명희(1993),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이선재·장은영(1990), "한국 성인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 28.

이현미(1987), "어머니와 딸의 성역할정체감과 음양의복 행동간의 관계—이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진경(1990), "한국성역할특성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최경희(1983),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태도와의 관계—유니섹스 의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2).

최윤경(1990), "성인여성의 성역할태도 및 직업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희순(1988), "성역할태도와 의복관심도와의 관계—제주도 여대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reekmore, A. M(1966), "Method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783, Michigan State University.

Davis, L. L(1984), "Sex, Gender Identity, and Behavior Concerning Sex-Related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3(2).

Gibbins K & Schneider(1980), Meaning of Garments: Relation Between Impression of an Outfit and the Message Carried by Its Component Garment,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1(1).

Sweat, S. J & Zentner, M. A(1985), Attributions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Solomon, M. R.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ss.; D.C. Health and Co.